

1920~30년대 주택정원의 형태와 특징에 관한 연구[†]

- 대중매체의 내용을 중심으로 -

길지혜* · 박희성**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상임간사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연구교수

I. 서론

개항기 이후, 그리고 식민지기 도시화 과정에서 국내 주택의 형태는 전통 소재의 한옥에서 새로운 소재의 한옥, 절충식 주택, 도시형 한옥, 문화주택 등으로 급격히 변화했다. 전환기의 주택 건축 부문에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건물을 제외한 외부공간의 연구는 크게 소외되어 그 특징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지금까지 한국정원의 연구가 대체로 조선에 집중되고 있는 점, 정원은 그 자체로 변화하고 살아 있는(living) 존재라는 점, 특히 주택정원은 거주하는 사람의 기호에 따라 쉽게 변화할 수 있기에 근대기 원래의 모습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920~30년대는 주택환경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시기로 평가된다. 또한, 사회문화적으로도 '신여성', '신가정', '모던가정', '스위트 홈' 등 부부 중심의 새로운 가정관이 도입된 시기(백지혜, 2005)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주거 형태와 유형이 모두 급변했던 전환 시기에 주택정원이 어떠한 형태와 특징을 띠었는지를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둔다.

II. 연구 과정

1920~30년대에는 많은 대중잡지가 창간되었는데 그중 주택정원에 관한 기사가 있었던 『신가정』(동아일보사 발행, 1933~1936), 『家庭之友』(조선금융조합연합회 발행, 1936~1938), 『우리집』(기독교조선감리회총리원교육국 발행, 1931~1936), 『家庭의友』(조선금융조합연합회 발행, 1938), 『여성』(조선일보사 발행, 1936~1940), 『朝光』(조선일보사 발행, 1935~1948), 『별건곤』(개벽사 발행, 1926~1934)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더하여, 같은 시기에 발행된 주요 신문에서 정원과 취미, 정원과 주택, 庭園 키워드로 검색하여 걸러진 기사의 내용을 추출하였다.

잡지와 신문 등의 대중매체에서 1920~30년대 주택정원의 필요성에 대한 담론과 가정 방안 기사에서 주택정원 묘사 내용에

집중하여 살펴봄으로써, 그 형태와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III. 주택정원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1. 도시환경에서 주택정원의 필요성

주택정원의 필요성은 도시인구 밀집과 관련하여, 그리고 주택 개량 담론에서 중요하게 언급된다.

조선 후기 10만~20만명 내외로 유지되었던 한양의 인구는 1920년 25만, 1930년대 40만명, 1940년대 100만명에 육박하여 30여년 만에 5배 이상 늘어나게 되었다(손정목, 1996). 인구가 급증하고 밀집하면서 청정한 공기와 채광은 건강에 있어 필수적인 개념이 되었고, 도시에 자연을 끌어오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되었다. 그 방법의 하나로 정원 조성을 권장하였다. 1935년 기사에는 “도시생활에 전원미를 加하는方法”(『신가정』 3(5)) 특집 코너가 마련되며 ‘소규모의 전원을 가지라’, ‘전원도시를 건설하라’, ‘도시에 나무를 심으라’ 등에서 도시에서 수목과 화초, 채소를 재배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우리 도시가 수목이 적어 경관과 위생에 좋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주택 개량의 방법 관련해서는 대중매체에서 글, 도면, 투시도 등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난다. 20년간 여러 대중매체를 통해 주택 개량 방안에 대해 살펴봤던 박길룡(이경아, 2019)은 주택에서 정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도시에서 정원 공간을 넓게 갖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되도록 화초를 많이 심고 채소도 재배할 것을 제안했다.(『신가정』 3(5)) 그리고 정원을 확보하기에 도시형 한옥의 중정형(口자) 배치가 적합하지 않다고, 주택을 가운데 놓고 정원을 주변에 두르는 집중식 배치로 변경할 것을 주장하였다. 주택 사방에 정원을 조성하는 것이 여름철 더위를 피하고 공간을 이용하는 데 유리한 점이 많다고 보았다(『신가정』 2(7); 4(1)). 또한, 좁은 주택 외부공간이 장독대로 점유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그 배치를 변경해 정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했다(『신가정』 2(7)).

*: 이 성과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2019R1A2C1090850)

2. 주거생활에서 주택정원의 필요성

주택정원의 기능은 다양하게 언급되는데, 한 기사에서는 정원을 가꾸는 것이 건강에 좋으며, 가정을 단란하게 하며, 식용채소 재배로 경제적 이익이 있으며, 자연을 관찰하게 해 자녀교육에도 좋다고 주택정원의 효용을 정리했다(『신가정』 3(5)). 이 중에서도 많은 기사에서 주택정원이 과수, 채소를 재배함으로써 얻는 실용성이 높다고 강조한다. 필요한 채소와 과일을 수확하고 남은 산물은 판매할 수 있다고(『신가정』 1(10)) 추천하였다.

더 나아가 정원을 가꾸는 자체가 개인에게 중요한 문화적 취미가 된다는 인식도 늘어가고 있었는데, 이는 잡지에 실린 정원 주제를 통해 추론할 수 있다. 잡지에 정원 가꾸는 방법과 원예식물을 소개하는 기사가 등장하고, 신문기사 칼럼에서 주택과 정원 조화의 중요성, 정원의 의미, 한국정원의 역사와 같이, 정원 관련 시리즈 기획물을 다루었다(동아일보 1932.9.22; 1932.9.23; 1932.9.25; 1932.9.28.). 정원 가꾸기에 관한 인터뷰가 늘어나고, 이들의 입을 통해 정원 가꾸기는 여가생활의 취미로 정착되었다. 해외에서 유학 생활을 했던 박인덕 씨는 화초를 사랑하는 민족의 생활이 좋아 보여 여가생활로 정원을 가꾸게 되었다고 하는(『여성』 5(8)) 등, 여러 기사에서 식물에 애착을 갖고 매일 가꾸는 모습이 등장하였다.

IV. 주택정원에 대한 묘사

1920~30년대 대중매체에는 소설가, 음악가, 미술가, 조각가, 사업가, 교수 등 당대 유명인의 주택을 찾아가 인터뷰한 기사가 많이 등장한다. 이름만 봐도 알 정도의 유명인이 많으며, 유학이나 장기 해외여행을 다녀온 지식인이 대부분이어서 당시의 보편적인 상황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다만 그 시기에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생활이나 주택정원의 모습을 연상해볼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주택 입지가 산과 가깝거나 고목이 있는 경우, 이들을 활용해 주택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성북동에 있었던 주택에서는 주변 산림과 조화롭게 담 대신 전나무를 심었으며(『신가정』 1(6)), 사직공원 인근 한 주택은 느티나무 고목을 가까이 두고 가지가 창가에 늘어지게 했다(『여성』 2(8)). 언덕에 자리한

주택은 기존 돌과 바위를 언덕에 쌓아 식재하며 정원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주택정원의 형태는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넓은 필지에 배치된 한옥은 채에 따라 구획하여 각각에 다양한 유형의 정원을 조성했으며, 필지 활용이 제한적인 도시형 한옥에는 중정에, 서양식 절충의 문화주택에는 전면부에 넓은 정원이 조성되었다. 마당에는 여러 형태로 화단을 만들어 수목, 초화류를 식재하고, 담장이나 울타리 아래에는 초화류를 심었다. 언급된 수목으로는 고추나무, 단풍나무, 등나무, 석류나무, 소나무, 전나무, 파초나무, 포도나무가 있었고, 달리아, 맨드라미, 무궁화, 백일홍, 봉선화, 진달래, 채송화, 한편, 해바라기 등의 초화류가 있었다. 채마밭에는 채소류, 딸기, 옥수수 등을 키우고 닭을 방목하였다.

마당에서 화단을 제외한 부분에는 잔디를 깔고 이동동선에 돌 징검다리를 배치한 예도 있었다. 주로 문화주택의 경우가 그러해, 푸른 잔디가 깔린 위에 드문드문 놓인 안락의자, 잔디가 가득 깔린 정원에 진자주빛 맨드라미를 심은 모습이 묘사되었다.

V. 결론

주택정원의 필요성이 지식인층과 매체를 통해 강조되었으나 실제로는 경제적 여건, 협소한 주택 부지면적, 장독대로 사용해야 할 필수적 외부공간 등의 제약이 있어 정원문화가 대중적으로 확산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몇몇 주택정원 사례를 통해 이전과 다른 근대기 정원 모습을 부분적으로 엿볼 수 있었다. 경험한 해외 정원 형태를 재현하려 하며, 근대교육을 받은 원예가가 등장하며 정원 가꾸기 모범을 제안하였으며, 외국에서 수입한 식물종 식재, 마당의 잔디 마감, 지형차가 있는 연결부에 석축을 쌓아 정원을 만든 점 등이 나타났다.

참고문헌

1. 백지혜(2005) 스위트 홈의 기원, 서울: 살림.
2. 손정목(1996) 일제강점기 도시화과정 연구, 서울: 일지사.
3. 이경아(2019) 경성의 주택지, 서울: 집.
4. 『동아일보』 1932.9.22; 1932.9.23; 1932.9.25; 1932.9.28.
5. 『신가정』 1(6); 1(10); 2(7); 3(5); 4(1).
6. 『여성』 2(8); 5(8).